

■ 구례군에선 무슨일이?

크고 작은 비리의혹…잇단 폭로전

구례군이 5·31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흉흉하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심한 '편 가르기'가 전경태 전(前) 군수 피습사건으로 이어지는 '불상사'로 나타났다. 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지난 8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온 전(前) 군수가 낙선하면서 그동안 끌었던 폐해가 터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례군은 들어 ▲군수와 언론의 유착관계 ▲사회단체 운영방식 ▲계약 공무원 채용 ▲선거 폭행 ▲공무원과 지역기자의 재무 관계 및 도박사건 ▲인사 전횡 등 각종 비리의혹이 지역신문에 잇따라 폭로되면서 물살을 애워왔다. 근거 없는 이 같은 폭로전과 소문은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갈등을 빚었으며, 선거를 계기로 폭발되거나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사상최대의 거소투표(居所投票·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부재자 신고를 한 뒤 거주하는 집에서 투표하는 것) 부정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구례는 또 한 차례 큰 폭풍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체 인장단 150명 가운데 67명(구속 9명·불구속 58명)을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과 특정 후보의 사조직 등이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훼조합 대표 보조금 12억 횡령

검찰, 나주시 공무원 수사 확대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5일 국고 보조금 수십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N화훼영농조합 대표 서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2004년 5월~2005년 2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 9억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나주시로부터 보조금 12억 3천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서씨는 또 2004년 1월 나주에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면서 국유지인 농수로 2천 900㎡(877평)를 불법으로 매입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정훈 나주시장이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허위공문서 등을 이용해 서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서씨와 담당 공무원들이 신 시장의 개입사실을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신 시장의 무혐의 결정과는 별도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경태 前 구례군수 피습 '중태'

과거 측근이 흥기 휘둘러…범행 후 자해

군수시절 '논공행상 배제' 원한 품은 듯

전경태(59) 전(前) 구례군수가 과거 자신의 측근이 휘두른 흥기에 휘둘러 중태에 빠졌다. 이 측근은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 전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줬으나, '논공행상'에서 배제되자 원한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被襲)=5일 새벽 5시50분께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P호텔 2층 사우나 계단에서 이모(57·구례군 구례읍·무직)씨가 전 전 군수의 배를 흥기로 칠했다. 전 전 군수는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7시간 가량 수술을 받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 전 군수는 위 손상

으로 인한 복막염과 폐혈증(敗血症)이 우려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단의 불을 끄고 ▲추격에 대비, 승용차 바퀴에 펑크를 냈으며 ▲구례읍내에서 염산 구입을 문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또 범행 후 전 전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D종묘 대표 장모(53)씨의 집으로 찾아가 장씨 소유 오피러스 승용차에 시녀를 깊이고 불을 질렀다.

◇도주 및 검거=이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삼진강으로 달

아나다 이날 오전 7시께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E식당을 찾아 평소 아는 주인에게 유서를 전했다. A4 용지 7장 분량의 유서에는 '구례를 위해 큰 일을 하고 간다. 측근인사는 사리해야 한다' '구례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벌였다' '주재기자들은 앞으로 지역발전에 힘써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이어 흥기로 자신의 배를 두 차례 치르고 식당 인근의 삼진강으로 뛰어들었다. 이씨는 2시간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남원의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범행 동기=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전 전 군수와 40여 년 가까이 친분을 쌓았지만, 전 전 군수는 재직시절 자신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 의원을 지난 김모(50)씨는 "이씨와 장씨는 지난 2002년 선거캠프

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씨는 전 전 군수와 장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등 우대한 반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출대하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용차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장씨는 "이씨가 3~4년 전부터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는데, 이제 서야 '일'을 벌인 것이 수상하다"며 "외부세력이 이씨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술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이씨가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전 전 군수는 1998~2002년과 2002~2006년 두 차례 구례군수를 지낸 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서기동 현 군수에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전경태 전 구례군수가 피습을 당한 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전 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모(53)씨의 오피러스 승용차가 5일 오전 불태워진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원용 前 무등건설 회장 구속

광주지검, 회삿돈 8억 횡령·150억 고의부도 혐의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대출받은 뒤 고의부도를 냈던 혐의로 광주 유명 건설회사 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호)는 5일 은행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지앤씨 회장 김원용(61)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대표이사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회사자금 8억원을 횡령해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 및 가족명의로 리스한 고급 벤츠 승용차(S600) 3대의 리스료를 회사에서 부담도록 했으며 ▲개인대출금 이자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2003년 9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부지를 H건설에 미등기 전매해 지방세 3억원을 포탈하고 ▲같은 해 4월에는 농협 광주지역본부 대인동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996년에 도(주)무등건설을 운영하면서 150억원의 부도를 냈 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다시 회사를 설립했으며, 을 초에도 대인동 지점의 대출금 15억원을 포함해 150억원을 부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기와 배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으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 자신의) 1인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건설회사 2개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채가 많은 회사만 부도를 내 김씨만 믿고 거래한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김씨에게 15억원을 대출해 준 농협 대인동 전 지점장 김모(56)씨를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일침
6919
김종득



연예 2자동 ●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5세대 333세대
문의 (062)366-4220

시의원, 학원강사 매수 검정고시 합격

○…서울시의원이 학원강사를 매수해 고집 및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일부 정치인이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대체적인 수사에 착수.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5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시의원 유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씨 대신 시험을 봄은 학원강사 최모(54)씨를 구속.

○…유씨는 최씨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2003년 2월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집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해 인천교육청에 제출토록 한 뒤 그 고집 및 고졸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

○…검찰은 최씨 집에서 다른 정치인의 학적증명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씨가 정치인들의 검정고시를 상습적으로 대신 봐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의표명 후 잠적한 유씨를 추적 중이라고.

/연합뉴스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